



##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

[시행 2018. 9. 1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, 2018. 9. 11., 일부개정.]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 044-202-7705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현장실습생의 범위)**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"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운영 등)**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생의 성명
2. 현장실습생의 훈련(실습) 수당
3. 직업교육훈련기관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한다.

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. 다만,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.

**부칙** <제2018-69호, 2018. 9. 1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재검토기한(3년)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&A

### 적용대상·범위

####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'현장실습생'의 범위는?

- ❖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서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

#### ② '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'의 기준은?

- ❖ 실습생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현장실습(유급여부, 실습기간 무관)
- ❖ 단, 노무제공 없는 단순 견학은 제외

#### ③ '실습학기제'도 포함되는지?

- ❖ 포함,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(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)
- ❖ 노무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건별 판단
  - \* 단순 견학의 경우, 노무제공이 없었던 내용을 사업장에서 증빙

#### ④ 보육, 간호, 사회복지 등 자격취득 관련 현장실습도 포함되는지?

- ❖ 포함, 실습생 보호의 취지에서 자격취득 관련 현장실습을 적용 범위에서 배제할 합리적 사유 없음
- ❖ 노무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건별 판단
  - \* (예시) 일부 간호실습의 경우, 노무제공 없이 단순 견학 수준으로 운영

#### ⑤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가 발생하는지?

- ❖ 미발생, 산재보험에 한해 특례적용
- ❖ 다만, 사용·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의무 발생

#### ⑥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?

- ❖ 미발생,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(擬制)하는 것으로(산재보험법 제123조),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법과는 별개
- ❖ 다만, 사용·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법 준수의무 발생

### 수당·보험료

#### ⑦ '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'의 기준은? 근로·기타소득의 기준은?

- ❖ 실습생이 노무제공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
- ❖ 훈련수당은 '과세 근로소득'에 해당(기재부 소득세제과)
  - \* 소득세법에서 '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'을 '비과세 근로소득'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실습 훈련수당은 장학금과 다르다는 입장

#### ⑧ 무급 현장실습의 보험료는?

- ❖ "0원", 보험료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(0원)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(보험료징수법 제13조)

### 보상범위·수준

#### ⑨ 보상범위 및 수준은?

- ❖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(요양·휴업급여 등)
- ❖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

10 사업장에서 별도 '민간 상해보험'에 가입한 경우는?

- ❖ 산재보험과 민간 상해보험 모두 급여 지급
- ❖ 다만, 산재보험에서 민간 상해보험 수급 급여 상당액을 제외  
(산재보험법 제80조)

11 학교에서 '학교안전공제'에 가입한 경우는?

- ❖ 산재보험과 학교안전공제 모두 급여 지급
- ❖ 다만, 학교안전공제에서 산재보험 수급 급여 상당액을 제외  
(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, 현장실습안전공제 약관 제9조)

미가입·미납

12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실습생도 보상 가능한지?

- ❖ 보상 가능,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실습생 보호
- ❖ 다만,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%,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%를 사업장으로부터 징수\*
- \* 단, 징수액 한도는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(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)

13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불이익은?

- ❖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보험료징수법 제50조)
- ❖ 미가입 또는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,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장으로부터 징수



# 보도자료

7월 1일, 우리는  
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.

☎ 보도일시: 2018. 9. 11(화) 석간, ❖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
<인터넷 2018. 9. 11(화) 09:00 이후> 과 장 주평식 (044-202-7710)  
☎ 총 4쪽 (붙임 자료 포함) 사무관 어일천 (044-202-7712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 고교·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

-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·질병 보상,  
재활훈련·직업교육까지 지원

-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‘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’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
  - \* 산재보험법 제123조: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 적용
- 이를 통해,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.

### 【 현 행 】

### 【 개 정 】

범 위	▶ 직업계고 한정 *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*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등	▶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*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*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 등
규 모	▶ 약 6만명(26.3%)	▶ 약 22만명(100.0%)

○ 지난 '98년 제정된 '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'은 당시 그 범위를  
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하였는데

- 이후,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 
확대·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.
-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 
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 
받을 수 있게 된다.



○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 
대상으로 하고

-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(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 
준하여 지급)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 
수급받을 수 있어,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 
크게 해소된다.
- 뿐만 아니라,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  
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 
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,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  
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”면서

○ “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”라고 하며,  
“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 
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개정 고시안은 “고용노동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” 홈페이지에서 확인  
할 수 있다.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(☎044-202-771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생의 범위)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"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"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 등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현장실습생의 성명

2. 현장실습생의 훈련(실습) 수당

3. 직업교육훈련기관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·납부해야 한다.

-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. 다만,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※ 재검토기한(3년)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